

* 등급정보 (돼지) *



■ 등급별 출현율(전국)

▷ 7월 돼지도체 등급판정두수 : 1,137,628두로 전월대비 10,962두(1.0%) 증가, 전월동기 65,928두(6.2%) 증가

▷ 육질등급별 출현비율 : 1등급 2.7%, 1등급 68.1%, 2등급 24.2%, 3등급 1.5%
- 1·1등급 출현율 : 70.8%로 전월 대비 1.4%P 감소

▷ 규격등급별 출현비율 : A등급 39.7%, B등급 31.0%, C등급 15.6%, D등급 10.2%, E등급 3.6%

- A·B등급 출현율 : 70.7%로 전월대비 1.1%P 증가, 전년동기대비 3.4%P 증가

■ 돼지 등급별 경락가격(농협서울공판장)

▷ 돼지도체(암돼지) kg당 평균경락가격(♂등급 제외) : 4,747원으로 전월대비 160원 상승, 전년동기대비 251원 상승

▷ 육질 등급별 : 1등급은 5,522원으로 전월대비 113원 상승, 1등급은 4,994원으로 전월대비 200원 상승, 2등급은 3,805원으로 전월대비 82원 상승, 3등급은 2,975원으로 전월대비 138원 하락, 1등급과 2등급간 가격차이는 1,717원

▷ 규격 등급별 : A등급은 5,209원으로 전월대비 188원 상승, B등급은 4,885원으로 전월대비 150원 상승, C등급은 4,460원으로 전월대비 170원 상승, D등급은 3,839원으로 전월대비 78원 상승

돼지등급별 출현두수 및 출현율

(단위 : 두, %)

구분	등급	'09년 1~7월	'09년 7월	14개도배시장 (공판장)상장	지방직업장 이 용
육 질	계	7,852,280	1,137,628	131,286	1,006,342
	1등급	179,611	30,317	2,385	27,932
		2.3	2.7	1.8	2.8
	1등급	5,482,533	774,441	74,064	700,377
		69.8	68.1	56.4	69.6
규 격	2등급	1,790,816	275,383	34,525	240,858
		22.8	24.2	26.3	23.9
	3등급	124,038	16,857	5,300	11,557
		1.6	1.5	4.0	1.1
	A등급	3,011,861	451,271	37,128	414,143
규 격		38.4	39.7	28.3	41.2
	B등급	2,391,735	352,732	34,670	318,062
		30.5	31.0	26.4	31.6
	C등급	1,219,672	177,190	21,483	155,707
		15.5	15.6	16.4	15.5
E 등급	D등급	953,730	115,805	22,993	92,812
		12.1	10.2	17.5	9.2
	E등급	275,282	40,630	15,012	25,618
	3.5	3.6	11.4	2.5	

※ 주) 1. 2007년 7월 1일부터 돼지등급판정기준개정에 따라 육질등급판정 시행 2. 육질등급자료는 E등급 제외하고 집계

등급별 출현을 추이

(단위: 년, 두, %)

구분	2007	2008	2008		2009			D-C	D-A	E-B	
			7월(A)	1~7월(B)	6월(C)	7월(D)	1~7월(E)				
판정두수	13,611,855	13,757,324	1,071,700	7,837,761	1,126,666	1,137,628	7,852,280	10,962	65,928	14,519	
육질	1	-	1.4	1.2	2.7	2.7	2.3	-	1.3	1.1	
	1	-	65.5	63.8	63.9	69.5	68.1	69.8	Δ1.4	4.3	5.9
	2	-	27.3	28.6	28.8	23.1	24.2	22.8	1.1	Δ4.4	Δ6.0
	3	-	1.8	1.9	1.9	1.5	1.5	1.6	-	Δ0.4	Δ0.3
규격	A	36.3	37.0	36.8	36.5	38.8	39.7	38.4	0.9	2.9	1.9
	B	29.7	30.1	30.5	29.9	30.8	31.0	30.5	0.2	0.5	0.6
	C	16.7	16.4	17.1	16.6	15.4	15.6	15.5	0.2	Δ1.5	Δ1.1
	D	13.5	12.4	11.3	12.9	11.7	10.2	12.1	Δ1.5	Δ1.1	Δ0.8
	E	3.8	4.0	4.3	4.2	3.3	3.6	3.5	0.3	Δ0.7	Δ0.7

가격전망

- 여름휴가철 끝, 개학 시작 돈가 혼조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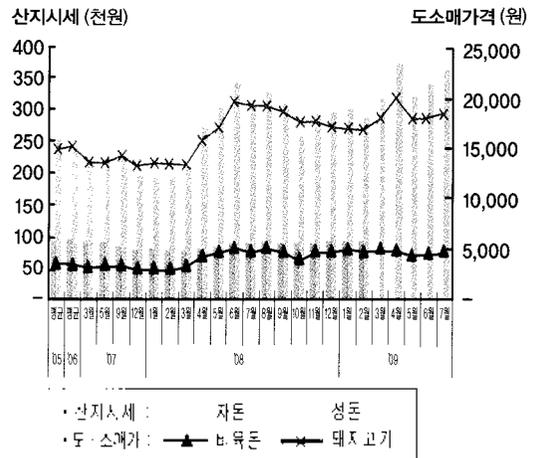
전국 돼지 지육 kg당 평균가격이 8월 3일 현재 4,941원, 10일에는 5,005원으로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8월의 돈가는 여름 휴가철 소비로 15일 전후로 강세,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러한 흐름과 동시에 향후 8월 하반기 돈가는 잦은 국시성 장마로 인해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오는 9월 개학시즌을 앞두고 있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동향

- 돼지 흐름별 시세변동 추이

년	구분	산지시세		도매가	소매가
		돼지		현국	현국
		자돈	성돈	비육돈	돼지고기
'05	연평균	92	253	3,730	14,888
	'06	연평균	94	248	3,649
'07	5월	89	226	3,445	13,632
	9월	83	229	3,398	14,666
	12월	77	197	2,905	13,296
	1월	77	195	2,859	13,736
'08	2월	76	194	2,832	13,626
	3월	75	210	3,245	13,282
	4월	75	273	4,116	14,736
	5월	82	303	4,591	16,916
	6월	89	341	5,000	19,494
	7월	89	307	4,552	18,966
	8월	90	328	4,925	19,398
	9월	90	308	4,447	19,028
	10월	88	259	3,633	17,792
	11월	89	293	4,536	17,568
	12월	91	297	4,482	17,302
	'09	1월	91	304	4,487
2월		91	289	4,225	17,006
3월		-	319	5,031	18,082
4월		-	375	4,955	20,128
5월		-	321	4,245	17,982
6월		-	343	4,531	18,292
7월		-	365	4,826	18,922

주) 1. 산지시세 단위: 천원
 2. 도·소매가 단위: 원/kg(도매가 도체 kg당 단가, 소매가 kg당 삼겹살 가격 기준)
 3. '09.3월부터 돼지산지시세 조사중단으로 성돈가격은 농협중앙회 추정치임



* 축산뉴스 (돼지) *

‡ 日정부, 5년만 제주 돼지열병 청정화 인정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24일 돼지열병에 대한 제주 청정화를 인정,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을 4년 8개월만에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한국에 제시, 양국간 일본 수입위생조건만 협의되면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소·돼지 질병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제주 돼지열병 청정화를 인정,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3일 '돼지열병 항체돈 도태완료' 및 '돼지열병 Free Zone' 등 수입 위생조건이 충족됐다는 사실을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후속조치로 지난 1월 30일 일본 농림수산성을 방문, 일본 에도 타쿠 대신정무관(2선 중의원)을 면담, 제주의 돼지열병 청정상황 설명과 수입재개를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국제위생전문관(3명)을 제주에 파견, 수출작업장·양돈장 등 수출 현장에 대한 위생상황을 점검하는 등 수출재개 여건을 조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4일 일본 '소·돼지 질병위원회'는 돼지열병 항체발생으로 2004년 11월부터 수입 중단됐던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입재개 증명 검사데이터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제주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고 판단, 수입재개를 결정한 것. 제주는 이에 따라 4년 8개월만에 일본으로의 수출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국내 타 시·도산 돼지고기는 일본 수입위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날 수입재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 양돈협, "8월부터 전국시세 적용" 결의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내달부터 전국시세를 적용해 출하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 같은 양돈협회의 결정은 서울공판장의 시세 급등락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하루 돼지 도축물량이 약 500두로 전체 도축두수의 2% 수준에 불과한 서울공판장 시세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돼지가 거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최근 서울공판장에 반반급여 돼지 출하가 증가하면서 D등급 출현율이 상승해 평균시세 하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자투리뉴스 |

농식품부, 2010년 축산예산 '1조1천556억' 요청

농식품부가 내년 축산부분 예산운영과 관련, 1조2천408억원보다 852억원, 6.9%가 감소한 1조1천556억원을 편성해 예산당국에 요구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축산부분 예산의 총 운용규모는 농특회계 1천608억6천만원, 축발기금 8천704억5천만원, FTA기금 1천243억2천800만원 등 1조556억원이다. 그러나 타 회계로 이관·통합돼 축산부문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감안하면 실제 운용규모는 691억원, 6.4%가 증액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썬코바이러스 백신비에는 120억이 신규 지원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재원부족이 예상되는 축발기금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고 농특회계와 FTA기금 예산을 확대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특회계에서 썬코바이러스 백신비 120억원, 양돈실습장 15억원 등이 신규 지원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확대되는 등 올해대비 225억원, 16.3%를 증액했다. 또 한·미 FTA의 비준을 대비해 FTA기금도 올해대비 138억원, 12.5%가 증액됐다. 반면 축발기금은 축산공제, 사료구매이차보전 등 1천296억원이 타회계로 이관·통합돼 2009년 대비 사업비가 132억원, 1.8% 감소했으나 운용규모는 3.0%가 증가했다. 특히 축발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은 6천555억원 규모가 예상되나 지출액은 사업비 7천284억원을 포함한 8천705억원으로 과부족분 2천600억원은 정부출연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축산공제, 사료구매·긴급경영안정 이차보전, 우량송아지비육시설 등의 사업이 통폐합되고, 동물약품검사시설 및 장비, 축산물직거래이동차량지원 등의 사업이 중단되는 등 기존의 40개 사업이 34개로 축소된다.